



보도자료



2021년 7월 2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(총괄) 재해보험정책과 박선우 과장(044-201-1791), 최중순 사무관(1794) / 제공일: 7월 20일(총 9매)
 (농가안전) 농촌정책과 최정록 과장(1511), 신지영 서기관(1516)
 (가축) 축산경영과 박홍식 과장(2331), 김정수 사무관(2332)
 (노지채소) 원예산업과 김형식 과장(2231), 이승욱 사무관(2232)
 (시설·과수) 원예경영과 김희중 과장(2251), 김혜을 사무관(2252)
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(063-238-1040), 김쌍수 농촌지도관(1051)
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조은주 부장(02-2080-5400), 한민희 팀장(5402)

정확한 농사정보 전달하고 준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에 총력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식품부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어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위험증가, 가축폐사 및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우려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.
- ◆ 첫째, 고령농업인 등 대상,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강화
 - 폭염특보 시 농업인 대상, 온열질환 예방요령* 알림서비스 제공
 - * Heat Time(12~17시) 작업 중지, 농작업 시 충분한 휴식, 물 자주 마시기, 무더위 쉼터 이용 등
 - 농촌 취약계층 대상, 찾아가는 현장지원 서비스 강화
 - 농촌지역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및 드론 활용 현장 예찰 활동 운영
- ◆ 둘째, 가축폐사 및 농작물 생육저하 피해 사전예방 강화
 - 가축사육 농가 대상,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준수 유도, 냉방시설 등 긴급점검 및 시설보완 지원
 - 농작물 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,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대응 현장기술 컨설팅 지원, 고랭지 배추, 무 수매비축 및 예비묘 준비
- ◆ 셋째, 재해대책상황실 지속운영(~10.15), 폭염 상황 파악 및 피해 복구 지원
 - 폭염피해시 재해보험의 신속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우선지급 등 현장복구 지원
 - 피해 정도에 따라 어린가축 입식비, 대파대, 농약대 비용 등 피해 복구비 신속 지원

-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금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「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」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.

< 기상 및 폭염피해 현황 >

- 기상청에 따르면, 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('18년, 31.4일)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, 폭염일수는 평년(9.8일)보다 다소 많을 것이며, 7.21일(수)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농업 분야는 주로 논·밭,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.

* 전국 연평균('14~'20) 2,216명 온열질환자 중 논·밭에서 14.7%(326명) 발생

- 또한,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·번식 장애,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하고, 농작물의 경우 수량감소, 품질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.

* '18년의 경우 가축 908만마리(닭 834, 오리 35, 돼지 5.7등) 및 농작물 22,509ha 피해 발생

< 농업·농촌 폭염 피해예방 대책 >

- 첫째, 지자체, 농진청,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.

- (폭염피해 예방) 농업인 대상 예방요령 송부, 논·밭 예찰 활동, 마을 방송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 (행안부, 농진청, 지자체 협조)

- 폭염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예방요령 SMS 송부, 특보발령 시 드론을 통한 논·밭 작업자 예찰활동 실시, 마을방송 및 차량을 활용한 폭염예방 길거리 방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.

*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,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예방요령 발송(농진청)

* 폭염특보시 드론 활용 차량 접근이 어려운 논·밭 중심으로 예찰활동(지자체, 드론동호회)

- 또한, 코로나19 관련 야외 무더위 쉼터를 정자, 공원, 인공천막, 텐트 등으로 확대하고, 선풍기 설치, 이용자에게 생수, 홍보용 부채 등 물품을 제공한다.

○ (취약계층 현장지원) 농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체감형 예방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. (농협 협조)

-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 대상으로,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(농업인행복콜센터*)하고,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, 쿨토시,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한다.

* 고령농업인을 대상 말벗서비스 등의 정서적 위로와 '돌봄도우미' 방문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전용 콜센터(상담사 20명/도우미 50천명/대상자 120천명)

- 또한, 취약농가에 영농·돌봄인력을 제공하는 참여봉사자*들 및 NH 농촌현장봉사단**과 협조하여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 안내하고,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방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*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(영농활동 지원) 및 행복나눔이(가사활동 지원) 파견('21년 26천가구)

** 고령농 대상, 노후주택 환경 개선 또는 긴급시 생필품 지원 조직(158개 시군, 농협직원)

○ (교육·홍보)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대한 공동체중심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·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. (지자체, 농업안전보건센터, 농업인단체 등 협조)

- 농업안전보건센터(5개소: 강원, 충북, 경남, 전남, 제주)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서비스를 통해 폭염 질환예방 및 안전대응 교육을 추진하며,
- 올해부터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* 교육내용에 폭염 대응요령 포함하는 한편, 여성농업인단체 대상 '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'을 홍보해 나간다.

* 농촌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토록 마을대표, 농업인 대상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(7~9월)

□ **둘째,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,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**
저감을 위해 **분야별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**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
○ **[가축피해 예방]**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·관리, 폭염 취약농가 대상 냉방장치 등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나간다.

- **(사육밀도 관리)**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**하여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, **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***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.

*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구성·운영(7.1일~) : 농식품부, 축산환경관리원, 축산물품질평가원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합동으로 적정사육 준수여부 점검

** 적정두수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제한 : ('21) 육계, 토종닭 → ('22) 돼지, 오리

- **(축사 점검)** 지자체·농축협·생산자단체와 협력, 폭염에 취약한 육계·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, 냉방장치 설치·작동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.

* 축산농가 대상 폭염대비 사전점검(1차: 5~6월, 47백개소/2차: 7.1~16일 6백개소), 폭염대응 요령 등 정보제공(5~7월, SMS 등 2.1만회 및 리플릿 2.2만부 배포 등)

* 폭염취약 가금농가(육계 2,697, 산란계 1,262) 긴급점검 실시(7.12~13, 환풍기 등 냉방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점검 후 미흡 농가에 대해 신속한 보수 등 지도)

- **(시설개선)**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·환풍기 등 폭염 피해예방 장비 구입 등에 **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***를 우선 지원해 나간다.

* ('21년 전체예산) 축사시설현대화 893억원 / (지원조건) 용자 80%, 자부담 20%

■ 아울러 지자체도 지자체 별도 예산을 확보(총 200억 원 상당)하여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*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.

* 선풍기, 환풍기, 안개 분무시설,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및 비상발전기 등

- (정보제공 및 기술지원) 농진청(축산과학원), 지자체,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폭염특보지역 농가대상 예방조치사항*을 문자,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는 한편 가축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지원*을 추진한다.

* 예방조치사항 : 축사 창문개방 및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 실시, 축사 천장에 물 분무 장치를 가동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 등

- 폭염피해 우려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가축사양 및 축사관리 요령, 환기시설(선풍기, 팬 등), 그늘막 설치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.

* 현장기술지원단 : 5개반 46명 운영(축산과학원 축종 및 질병 관리담당자, 도·시·군 담당자)

- 특히, 시·군 주요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지원반을 구성, 가축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.(~8.13)

○ **[농작물 피해예방]**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·수막시설 가동,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.

- (안정생산 지원) 폭염·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*하고,

* 현지에 상주하는 산지기동반(KREI) 및 주산지 농협 산지점검반(평창, 강릉, 정선, 태백 등 9개 농협) 운영을 통해 생육상황 상시 모니터링

-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클러,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 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지자체·품목단체·농협을 통해 과수원·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·홍보하는 한편,

- 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(8팀, 27명)이 과수·채소류 폭염피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(7.14.~)한다.

- 특히, 고온·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130만주(6.하순~8.중순 공급)를 준비하여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, 사과·의 경우 햇볕 데임(日燒)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(6,600호)에 탄산칼슘제를 공급한다.

- (수급안정) 폭염 지속 시 작황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**비축 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** 등 사전준비와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- 고랭지 배추·무의 수매비축(배추 10천톤, 무 2천톤) 및 사과·배의 계약출하 물량 추가 확보*를 추진하는 한편,
 - * 사과 : ('20) 7천톤 → ('21) 14천톤 / 배 : ('20) 9천톤 → ('21) 12천톤
- 정부의 수급조절 가능 물량(수매비축, 출하조절 시설 물량,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물량)의 탄력적 시장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.

〈 폭염피해 농가 지원 〉

□ 셋째,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「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」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과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.

-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%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,
-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 재해대책법*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,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,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시·군·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,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지원

-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,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(피해율 50% 이상), 영농자금 상환연기·이자감면(피해율 30%이상)을 지원하고,

* 예시) 생계비 123만원(4인가족 기준), 학자금 지원(일반고-전남, 읍지역) 44만원

-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,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금리 '재해대책경영자금'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재해대책경영자금 : 농가당 농작물 피해면적, 가축 피해마리수 1회 경영비 지원(사과 27백만원/ha, 인삼 78백만원/ha, 한우(비육) 760만원/마리, 비육돈 31만원/마리, 육계 18천원/10마리) / 고정금리 1.5%(또는 변동금리) / 융자기간 1년(추가로 과수 3년, 그 외 1년 연장 가능)

□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과 함께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맞추어 국지성 집중호우, 향후 태풍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사전조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* 저수지 저수율 관리, 배수로 준설 등 정비, 배수장 시설 점검·보완 등 예방대책,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24시간 상황관리,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

□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하여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, 농협 등과 함께 세심한 안내 및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,

○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을 빈틈없이 하는 한편, 주요 농산물의 생산관리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

폭염이란?

- 더위가 심한 것을 말하며,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고 있습니다.

폭염 특보 기준

- **[폭염주의보]** 일최고체감온도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- **[폭염경보]** 일최고체감온도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

사전 준비사항은

- ▶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
- ▶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·외 온도차를 5℃내외로 유지(건강온도 26~28℃)



주의보 발령시

- ▶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기
- ▶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
- ▶ 작업중 매 15~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(물 1ℓ에 소금 1/2 작은술)을 섭취하여 탈수증 예방



경보 발령시

- ▶ 12시~17시(오후 5시) 사이에는 야외 시설하우스 작업 금지, 휴식 취하기
- ▶ 거동이 불편한 고령, 신체약자,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·아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

"자연재해 발생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**농작물재해보험**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"

가입문의 : NH농협손해보험(1644-8900)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촌진흥청

농업기술실용 농촌진흥청(1544-8572), 각 시·군농업기술센터 | 농업기술정보 농사로 홈페이지(www.nongsaro.go.kr)

농업인보다 나은 농촌진흥청
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관리가 중요합니다.

www.rda.go.kr



폭염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요령



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고온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.

- 작물 생육부진으로 인한 수량감소, 양분 결핍, 물질에 저하됩니다.
- 식욕저하, 발육부진, 질병발생 등의 피해가 나타납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촌진흥청

농작물 관리요령



비

- 관개수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를 실시하여, 규산과 칼륨 비료를 더 줍니다.
- *비 생육 최고온도 : 관수분말기 38℃, 개화 - 수정기 35℃



발작물

- 스프링클러 자동 및 잎·물 등으로 발작물 뿌리 주위를 피복하여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합니다.
- *온 개화·수정기 35℃ 이상에서 생육장애를 받아 고부리와 공실의 발생 억제(사작)
- 사전 베타작업 실시 건조 우려시 표토를 끌어주어 수분증발을 억제합니다.
- 폭염 지속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방제를 실시합니다.



채소, 과수

- **[공통]** 관수 실시로 토양 적습을 유지하고 생육부진 시 염색시비를 실시합니다.
- **[채소]** 노지작물은 흑색비닐·차광망 등으로 이랑을 피복하고, 비가림 재배포장은 차광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합니다.
 - 고추는 인자병, 역병, 청고병, 진딧물 등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실시하고 잎소과, 석회결핍과 등 피해과실을 빨리 따내어 다른 품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.
 - 수박 등 과실은 잎 신묘지, 물 등으로 가려주기를 합니다
- **[과수]** 고온 시 과실 비대나 착색 발현이 불량하므로 미세살수 장치로 가동하거나 수관 상부에 차광망을 씌웁니다.
 - 햇빛 데갈(일소과) 증상이 많은 과원은 분지를 바꾸거나 반사필름 끼는 시기를 늦추거나 생략합니다.



가축

- **[소]**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환기로 환경을 낮춰줍니다. 사료는 소량씩 자주 급여하고, 사료조는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.
- **[돼지]** 지붕 단열 보강 또는 지붕 위 물 뿌려주기 등으로 온사 온도 상승을 막아줍니다. 사료 급여횟수를 늘려주고, 온사주변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조성합니다.
- **[닭]** 계사 천장 단열을 보강하고 환기팬의 청소 및 상태를 점검합니다.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을 급여하여, 충분한 환기로 체감온도를 낮춰 줍니다.

정전대비 시설하우스 관리요령

시설하우스 정전시 전기 구동장치(환기, 양액공급 장치 등)가 멈추면 시설 내 작물은 피해가 발생함



가솔린 발전기



다젤 발전기

- 시설하우스에 원활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

- 비상용 디젤엔진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 가솔린발전기를 구비
 - 양액공급, 관수, 환기장치 개폐 등의 구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

-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
 - 비가 오지 않을 때 : 이온 이침부터 열 창과 천창을 열어 정전에 대비하고 밤에도 창을 닫지 않는 것이 좋음
 - 차광률이 30~50%인 차광망을 설치해 고온피해에 대비
 - 한낮에 시설 내 온도가 높을 경우 : 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려 주어 온도 상승 억제

시설하우스 농가는 여름철 정전사태에 대비해 비상용 디젤엔진 발전기나 소형 가솔린발전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.



축사 화재예방 및 정전 대비

■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

- 농장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,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사용량 변경
-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 확인
-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 된 콘센트 등 노후 전기시설 즉시 교체
- 전선,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으로 청소
- 감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·기구에는 접지시설 확인 및 시공
- 축사 내 소화기 비치,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사용을 생활화
-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재해보험 가입

■ 자가발전기 등 비상용 에너지 확보

- 자가발전기 상태 및 유류량을 매주 1회 이상 점검
- 농장의 소요전력 사전 파악 및 비상발전기 임대가능 업체 연락처를 적어둠
- 발전기 용량 부족 시 한기시설 등 필수 장비 위주 가동

■ 청진발음 경우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경보기 설치

- 정전 시 출입구, 비상환기창 등을 개방하여 열, 유해가스를 신속 배출

■ 비상용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드림틀 또는 대형수조 준비

고온기 가축 위생관리

■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질병

- 소 : 열사병, 열사병, 유행열, 아까비네병 등
- 돼지 : 열사병, 돼지단독, 일본뇌염 등
- 닭 : 열사병, 계두 등

■ 가축질병 예방 관리

- 축사를 청결히 하고 정기적인 소독 실시와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제한
- 사전 백신접종, 해충 방제를 위한 축사 주변 집초·물웅덩이 제거 및 방충망 설치

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?

동물위생시험소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

신고전화 : 1588-4060

- ◆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☎ 063-238-1042
- ◆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☎ 063-238-7203

가축이 편안해야 농작업도 행복해 집니다.

여름철 폭염 가축 관리 이렇게 합시다 !

- ✓ 여름철 기온이 높게 올라가고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고온스트레스로 인하여 식욕과 성장이 떨어지고,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.
- ✓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, 환경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✓ 특히, 정전이 발생할 경우 온도 및 유해가스 농도 증가로 가축이 폐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농촌진흥청 · 농림축산식품부

고온에 의한 가축 피해

고온 스트레스	음수량 증가 섭취량 감소	체내대사 불균형	면역력 감소 생산성 저하	폐사
구 분	한·육우	정 소	돼 지	닭
일일온도	10~20℃	5~20	15~25	16~24
고온피해 시작온도	30	27	27	30

고온스트레스 최소화

- 환경온도 낮추기 : 송풍팬 가동, 지붕 물 뿌리기, 차광막 설치, 적정 사육두수 유지
- 정기적인 대비로 농장주변에 환풍기 설치 녹음을 만들어 줌
- 사료 섭취량 감소 최소화 : 신선한 물 공급, 시원할 때 사료주기, 소량씩 자주 먹이기
- 위생 관리 : 농장 안과 밖 정기적 소독 실시, 방역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

■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(chuksaro.nias.go.kr)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

- 축종별 가축 더위지수에 따른 가축관리 방법 제공
- 더위지수 : 온도와 습도를 활용해 가축이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값

구분	양호	주의	경고	위험	폐사
소	72미만	78미만	80미만	98미만	98이상
돼지	64미만	73미만	83미만	93미만	93이상
닭	63미만	73미만	80미만	91미만	91이상



깨끗한 물줄



차광막 설치



위생적인 돈사관리



지붕 위 물뿌리기



송풍팬 가동



쿨링패드

고온기 가축 및 축사관리

소

-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환경온도를 낮추어 줌
-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환기 실시
- 안개분무와 송풍팬을 함께 활용하여 물의 기화열을 이용해 온도를 낮춤
- 물통은 자주 청소해주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
- 사료는 소량씩 급여횟수를 늘려주고 사료조는 자주 청소
- 물사료는 5cm 정도로 얇아주고 병질보다는 짤이 좋은 물사로 급여
-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구입하고 건조하게 보관
- 비타민, 미네랄을 보충 급여하고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함
- 갑작스런 호우에 대비하여 축사 주변, 운동장, 초지·사료포 등의 배수로 정비

돼지

- 지붕단열 보강 또는 지붕 위 물 뿌려주기 등으로 온도 상승을 막음
- 송풍한 환기로 체감온도를 낮추고 냉동기, 안개분무 등을 설치하여 필요 시 가동
- 신선한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급수기의 수압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
-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사료급여 횟수를 늘려줌
- 변질된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사료는 1주일분 정도씩 구입함
- 돈방당 사육 두수를 알맞게 하여 적정 밀도를 유지함(비육돈 1두/㎡)
- 돼지의 출하 및 이동, 종모돈의 종부 등은 기급적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함
- 사료통을 매일 청소하여 사료내 병균상 미생물 오염을 방지함

닭·오리

- 단열이 부족한 계사/오리사 등에는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온도 상승 방지함
- 원지커튼 계사는 햇빛의 계사내 유입 방지를 위해 서쪽에 그늘막 설치함
- 무더운 한낮에는 지붕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 유입을 방지
- 환기는 자연환기보다는 환풍기로 강제환풍을 함
- 적정 사육밀도 유지와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
- 배합사료를 오래 보관하면 변질되기 쉬우므로 적은 양을 자주 구입
- 비타민C 및 칼슘 보충 급여로 고온 스트레스 감소와 연관 방지
- 환기팬의 먼지, 거미줄 등 주기적인 청소와 벨트 점검